

교회학교에서의 신체활동을 통한 하브루타 적용사례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의 사회는 과학과 의학의 발달, AI나 가상세계의 등장 등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할 정도로 수많은 갈등과 분쟁, 분열과 탐욕에 사로 잡혀 있다. 이는 비단 정치나 경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만 다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및 심지어 종교의 영역에 까지 깊숙이 뿌리 박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회는 극렬한 분규와 갈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권력과 다툼의 내용을 겪으면서 단지 교회 내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비화되어가기까지 하는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미 1960년대에도 이 땅을 휩쓸고 갔던 교단 혹은 교회 내의 주도권 분쟁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형교회의 세대 교체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란이나 교회 경영의 문제, 나아가 신앙의 신념에 기초한 의견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벌어지는 문제들은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내에서조차 차갑게 외면을 받으며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더욱이 중국에서는 2019년,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처음 발생하게 된 COVID-19이 세상의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함으로써 교회 역시 그 여파를 피해 갈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던 성도 수가 COVID-19 팬데믹의 장기 지속으로 인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한국갤럽, 2023) 더욱이 교회학교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까지 가세하여 어린이 수가 10년 전보다 감리교 45%, 예장통합 41.5% 감소를 보고하는 등 존폐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위기 속에 처해있다(국민일보, 2023. 03. 06.).

이러한 현상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도 예외가 없겠지만, 그 보다는 청년층이 떠나고 장년 혹은 노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반드시 COVID-19나 교회 분쟁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 더욱 심각한 원인을 바로 2013년부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줄곧 꼴찌를 기록하는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아무리 교회가 자정의 노력으로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COVID-19이 엔데믹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고, 출생아 수는 겨우 24만 9천여 명에 그쳤다. 불과 10년 전이었던 2012년의 48만 5천여 명과 비교해 본다면 참으로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저출산율의 충격이 바로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것이다. 최근 10년간 교세 현황 자료를 통해 출석 어린이 수를 살펴보면 감리교는 45%,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측은 41.5% 등이 감소하였으며, 교회의 43%에서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https://news.kmib.co.kr>).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많은 목회자들은 목회현장에서 다음세대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는 아마 다음세대의 문제가 지금의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 또한 다음세대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곳곳에서는 다음세대를 통한, 다음세대의 위한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며 이 난관을 헤쳐 나가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또한 한국교회의 교회학교에서의 다음세대의 부흥과 올바른 신앙교육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램과 사명을 가지고, 두 명이 짝을 지어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며,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유대인의 교육방법인 하브루타를 신체활동과 접목하여 교회학교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그 효과와 가능성을 점검하여 오늘날 다음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한국교회와 공유하여 그 아픔과 위기를 함께 극복해보고자 한다.

2. 하브루타

‘하브루타’란 간단하게 말하면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학습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학습방법으로서 짝을 이루는 상대방과 함께 서로 대화, 토의, 토론, 논쟁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학습전략이다. 이는 기존의 우리에게 익숙한 강의식, 혹은 주입식 교육과는 정반대의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학생들은 모든 학습과정에서 교사로부터 정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서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토론하며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된다. 결국 강의식의 일방적인 교육의 핵심 키워드가 지식습득, 진도, 교수학습, 획일화였다면, 하브루타의 키워드는 동료, 질문, 대화, 토론, 지혜의 습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 스스로가 질문을 찾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철저한 자기주도학습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에게 건전한 동기부여, 적극성, 자발성, 능동성 등을 충족시켜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특히나 ‘질문’이란 ‘모르거나 의심나는 점을 물어 대답을

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질문을 하려면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알고 있는 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학습법은 그것을 알려주기 보다는 정해진 정답에만 치우친 교육 일색이었기에 막상 질문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면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도 위축되거나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웃지 못 할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마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EBS에서 방송한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라는 프로그램 <제5부-말문을 터라>편에서는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에서의 웃지 못 할 해프닝을 소개한 적이 있다.

연설을 마친 당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훌륭한 개최국의 역할을 해준 한국에 감사하다며, 특별히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주었다. 그런데 "질문할 사람이 없냐?"라는 몇 차례의 질문에 도 불구하고 아무도 질문하는 한국 기자가 없자 결국 그 질문권은 중국 기자에게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질문 없음'에 대한 이유를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에 부담된다. 질문을 하면 수군거리거나 비아냥거린다. 정답만 말해야 한다. 수업에 방해가 된다. 나댄다.' 등으로 답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하브루타는 오늘날 우리 교육에서의 '질문 부재'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브루타'는 '친구'를 의미하는 '하베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이, 성별, 계급 등에 차이를 두지 않고 두 명 혹은 4명(혹은 그 이상)까지 짝을 지어 공부하면서 마음껏 자신들의 진리를 찾아가도록 도와준다. 이 때 부모와 교사는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와주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이들은 소통의 과정을 통해 다층적으로 지식을 이해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문제해결방법을 찾아가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브루타를 할 때 절대로 조용할 수 없다. 토론은 절대 침묵으로 눈짓과 몸짓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EBS (2013)의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라는 프로그램 <제5부-말문을 터라>편에서 공개된 유대인들의 명문종합대학인 미국 뉴욕의 '예시바' 대학의 도서관은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볼펜 한 자루만 땅에 떨어져도 소음의 책임을 져야 할 것만 같은 극도의 정숙을 요구하는 우리의 도서관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이는 분명 문화적인 충격이었다. 그들은 옆 사람의 말소리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원래 그렇게 떠들고 시끄러운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자신 역시 자기의 짝, 즉 하베르와 함께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또 다른 소음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소음이라 받아들이지도, 불평하지도, 관심 갖지도 않았다. 오직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에 집중하며,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나누며 스스로 던진 질문의 답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스라엘 교육전문가인 글로벌 엑셀런스(Global Excellence)의 회장 헤츠키 아리엘리(Hezki Arieli)는 유대교육의 특징을 질문을 통한 학습, 하브루타 교육, 자기주도로 구분한다(이익렬,

2019). 이는 다시 말해 질문하고, 토론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전성수 교수의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하브루타로 교육하라(2012, 위즈덤하우스)>에는 하브루타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 원리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김윤순, 2012).

- 하브루타의 핵심은 ‘질문’(아이에게 지시, 요구, 설명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기)
- 틀린 답에는 정답으로 답하지 말고 다시 질문으로 답한다.
- 충분히 내용을 알고 난 후 하브루타 한다.
- 외우고 아는 것보다는 뇌를 자극해서 사고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 서로 집중해서 눈을 보고 질문하며 대화하고, 어떤 대답이라도 막지 않고 수용한다.
- 칭찬을 할 때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칭찬해준다.
-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스로 찾아서 알아가도록 한다.
- 하브루타를 할 때에는 한 내용을 깊이 있고 길게 하는 것이 좋다.
-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쉬운 용어로 질문하여 충분히 생각하도록 한다.
- 모든 일상에서 하브루타가 이루어지게 하되 가급적 시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 잠자기 전에 하브루타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 어린아이라도 쟁점을 만들어 토론과 논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뇌 발달에 바람직하다.
- 반드시 가르쳐야 할 원칙이나 가치관은 대화를 통해 분명하게 인지시킨다.
-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한다(자기주도성).
-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한다.
-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대답하도록 유도한다.
- ‘네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되묻는다.
- 상대가 이야기 할 때에는 경청, 공감한다.
- 서로의 질문에 최선을 다하고 배려하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일반 하브루타의 장점과 기대효과를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하브루타를 교회학교 내에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접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 바로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일반 학습 현장에서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메타인지(metacognitive knowledge: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관점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 작용으로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를 확장시키는 순기능이 있다면 과연 교회 현장에서 하브루타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 하브루타선교회(2019)는 ‘성경하브루타’를 ‘성경하브루타는 성경 본문을 두

고,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짝을 이루어 질문, 대화, 토론, 논쟁하는 실천적 배움 활동이며, 하나님의 교육 원안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이미 하브루타 교육이 교회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브루타를 접목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김영한, 김민철, 2021; 나자유, 2022; 박종신, 2018; 이종화(2012; 전성수, 이익열, 2016)

3. 어린이 신체활동

1) 어린이 신체활동의 중요성 및 효과

팬데믹 시기, 영유아들이 3년 넘게 마스크를 쓰고 지내다보니 언어에 노출될 기회가 줄었고,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로 사회성과 인지발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언어가 지연되면서 친구들 간에 상호작용이 잘 안 되고 서로 놀이하면서 부딪히고 서울시가 2022년 어린이집 영유아 4백여명을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꼴로 언어나 인지 등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된바 있다(YTN뉴스, 2023. 06. 08.).

이와 더불어 최근 유아청소년들의 운동 부족 현상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학생 성적과 대학 진학에만 몰두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겠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인팍에서 대면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고질적인 문제가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9년 세계 142개국 청소년 160만 명을 대상으로 운동량 조사를 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권장 운동량 미달 비율은 94%에 달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신체활동량을 늘리는 전략들이 간구되고 있다(WHO, 2019).

아동기는 영아기의 급속한 신체발달이나 청소년기의 성장급등과 비교할 때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되며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신체의 체계가 안정되는 시기이다. 신체활동은 골격근이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신체의 움직임으로 정의되며(ACSM, 2018)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와 활동적인 삶의 방식은 아동들에게 체중관리, 근력과 유산소 능력, 혈압감소 등 여러 가지 신체적 측면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박경만 등, 2013; ACSM, 2020) 이 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뇌의 대사능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숙면,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능력 향상, 자신감 회복, 자기효능감 상승(김예성, 김은정, 2021; 박경만 등, 2013)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 시기 놀이를 통한 신체활동은 또래 친구와의 접촉을 통한 사회발달(이선경 등, 2020), 자신을 이해하고 자아를 발현할 뿐만 아니라 인지, 사회성 등 다른 영역의 발달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토대(박정민, 박미경, 2015)가 되기도 한다.

표 1.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FITT 권장사항

	유산소운동	저항운동	뼈 강화운동
빈도	매일	3일/주 이상	3회/주 이상
강도	중강도에서 고강도 사이에서 유산소운동이 되어야 함(중강도는 심박수와 호흡이 눈에 띄게 증가됨을 의미 고강도는 증가된 상태를 의미). 적어도 주당 3일 이상은 고강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좋은 기계적 신체형태를 단련하기 위해 중간 정도의 피로 수준이 느껴지는 지점까지 체중부하를 이용하거나 8~15회 최대하반복 운동 실시	해당사항 없음(N/A)
시간	1일 60분 이상	1일 60분 이상	1일 60분 이상
형태	유산소 신체활동에 적합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으로 달리기, 빨리 걷기, 수영, 댄스, 자전거타기 그리고 축구, 농구 또는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 등이 포함된다	근력강화를 위한 신체활동은 체계적인지 않은(예: 실외 놀이터 장비, 나무타기, 줄타기)또는 체계적인(덤벨들기, 운동용 근저항탄력밴드) 방법이 있다.	달리기, 줄넘기, 농구, 테니스, 근력운동 및 돌차기(한쪽 발을 들고 나머지 한쪽발로 돌을 차서 다음 칸으로 보내는 놀이. 예: 사방치기)와 같은 골 강화 활동.

출처 : ACSM(2018). 운동검사, 운동처방지침, 제10판. 서울: 한미의학

무엇보다 아동·청소년기에 형성된 규칙적 신체활동의 습관은 성인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 시기 신체활동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며(박경만 등, 2013) 아동기의 원활한 발육발달을 위해 생활 속에서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운동지침(FITT)에 관련된 사항은 비교적 최근에 규정화되었으며 세계적으로 공신력있는 미국스포츠의학회(ACSM)의 공식 가이드 내용을 정리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산소운동은 매일, 저항성(근력)운동은 주 3일 이상, 뼈강화 운동도 주 3회 이상 1회 실시 시 60분 이상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매일매일 즐겁게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신체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2) 성경적 하브루타와 어린이 신체발달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7)”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미래교육의 핵심은 어린이의 교육이며, 특별히 위의 신명기 6장 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성경에서는 어린이의 말씀 교육의 중요성,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지영, 김성원, 2020).

하브루타는 높은 효율성, 뇌를 격동시켜 사고력 증진, 지적, 창의적, 사회적 학습에 긍정적 효과, 자기주도 학습, 자기동기 학습 가능, 소통과 경청, 설득의 능력 형성 질문을 통해 아동들에게 생각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등 많은 잇점이 있다. 최근에 들어 이러한 잇점들이 알려지면서 미래교육의 대안으로 어린이들 대상 교회 안에서 하브루타 적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옥경, 정대현(2016)은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성경적 덕성교육을 하브루타를 통해 모형 개발했으며, 김보경(2019)은 하브루타를 적용한 교회 안의 실천적 지식 학습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하지만 교회안 아동, 청소년기 신체활동과 하브루타 접목 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신체활동 기반과 관련된 연구는 하브루타를 기초한 유아(만3-5세) 신체활동 수업이 협력적 인성, 친사회적 행동에 중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정혜림(2016)의 연구가 유일하며 교회 안의 프로그램 적용이 아니었다. 이처럼 아동에게 있어서 신체활동 기반 하브루타 적용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경하브루타의 정의 및 초등학교생들의 발달수준과 신체활동 욕구를 고려하여 성경말씀을 신체활동으로 재구성 하였다. 이를 교회학교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효과 및 가능성을 인터뷰를 통해 점검하였으며 다음세대의 부흥과 올바른 신앙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4. 신체활동을 통한 하브루타 적용 사례

1) 신체활동을 통한 하브루타 적용 프로그램

본 연구를 위해 적용한 프로그램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정은 본문에 기초하여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첫째, 나누어야 할 본문이 짧은 경우는 매주 주일 80분 동안 <설교-질문-신체활동-나누기>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진행하였고, 둘째, 본문이 길거나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경우는 주차별로 <표 2>와 같이 진행하였다.

표 2. 하브루타 프로그램 주차별 진행

주차	내용
1주차	하브루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
2주차	하브루타 본문으로 질문하고 토론하기(내용-심화-적용)
3주차	하브루타 본문으로 신체활동하고 나누기

단, 진행에 있어서 위의 절차와 과정을 강제하기보다는 설교자의 의도, 학생들의 반응,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연하게 진행하였다. 선행된 질문과 토론의 과정은 생략하고, 본 연구의 주제에

부합되는 ‘신체활동을 통한 하브루타’에만 초점을 맞춘 활동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교회학교에서의 신체활동을 통한 하브루타 적용 사례

본문	주제	교사의 제시
창세기11:1-9	바벨탑 사건	1. 이야기 전체를 몸으로 표현하기 2. 가장 인상적인 장면 만들기 3. 자유롭게 표현하기
요한복음5:1-9	베데스다 연못	(대부분의 활동에서 1-3번까지는 동일하게 제시하였고, 상황과 여건, 아이들의 요구나 흥미 등을 고려하여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교사가 방향성을 최소한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요한복음20:19-23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2) 신체활동을 통한 하브루타 적용 효과

①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

가. 바벨탑사건 (창세기, 11:1-9)

이야기의 내용 가운데 벽돌을 굽고, 탑을 쌓고, 언어가 혼란스러워지는 부분에 대한 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아이들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해함에 있어 사람들이 벽돌을 구워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활동을 하면서 혹은 활동을 마치고 아이들로부터 듣게 된 반응이나 질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탑을 쌓아 올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탑이 무너질까봐 조심했어요’, ‘탑을 쌓을 때는 형들이 밑에 있고 우리를 올려줘서 고마웠어요’, ‘위에 있는 친구들 혹은 동생들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 했어요’, ‘탑을 짓다 말았으면 그 탑은 어디 있나요?’, ‘우리가 만든 탑도 무너졌으니까 그 탑도 무너졌을 것 같아요’ 등의 답변들이 나왔고, 그 이외에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속담이 생각나요’, ‘바벨탑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엄청 화나셨을 것 같아요’라는 재미있는 답변들도 있었다.

나. 베데스다 연못 (요한복음, 5:1-9)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주변 행각에 있던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아이들은 교회 내에서 행각과 비슷한 장소를 찾아다녔고, 그 곳에서 물의 움직임에 기다리는 다양한 환자의 모습을 성경에 근거해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활동에서는 의외로 ‘유대인의 명절, 양문, 행각, 혈기, 베데스다, 움직이는 물’ 등 단어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이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표현해야 할 이야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아이들 역시 이해되지 않고, 잘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현 형태로는 행각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 등을 가장 많이 표현하였는데, 이것으로 보아 아이들이 이 사건을 ‘환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활동과 연관해서 ‘다른 사람들은 안 고쳐주셨나요?’, ‘왜 38년 된 환자만 고쳐주셨나요?’, ‘물은 어떻게 움직여요?’, ‘천사가 눈에 보이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픈 것도 고쳐주시나요?’ 등과 같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연구자가 느끼기에는 이 활동에서 아이들의 반응과 궁금증, 관심과 표현의 정도가 제법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아마도 이 이야기가 ‘병을 고친다’는 현실적인 문제, 즉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신화적 사건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해서 나타나게 된 특성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아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에 대한 소망, 기도나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이나 관심을 더 강하게 나타내보이기 보다는 아픈 환자들의 모습, 마치 마법의 지팡이를 보는 듯한 예수님의 기적의 행위에 더 집중해서 표현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이유를 대변하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되기에 앞으로의 신체활동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충분한 숙고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요한복음, 20:19-23)

이번 본문에서 아이들은 문을 닫았는데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실제로 이야기 전체를 몸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분히 연극적 요소가 적용되었는데, 실제로 제자들이 있는 것으로 뛰어 들어오는 아이, 점프하는 아이, 몸을 가리고 들어왔다가 갑자기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 바람처럼 소리를 내거나 빙글빙글 돌면서 들어오는 아이 등 각자 이해한 대로 소신껏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이해 정도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가장 많이, 그리고 강조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던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등장과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20절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활동에서 한 팀의 아이들은 자기 팀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맡아할 수 있도록 번갈아 가며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실제로 모든 활동을 마친 후에 그 팀의 아이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이 되었을 때와 제자가 되었을 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놀랍게도 제자였을 때는 ‘무서웠다’, ‘너무 기뻐다’라는 답변이 많이 나온 반면, 예수님의 역할을

말했을 때에는 ‘제자들이 불쌍했다.’ ‘답답했다.’ ‘섭섭했다.’ ‘슬펐다.’ 등의 답변이 나와 아이들이 의외로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공감하고 있음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② 신체활동을 적용한 하브루타 전체에 대한 반응

신체활동을 적용한 하브루타를 실시하면서 개개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공동의 반응들을 취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재미있어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좋아요,’ ‘퀴즈가 재미있었어요,’ ‘몸으로 표현하니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눈으로만 성경을 보는 것보다 몸으로 이야기를 만드니까 더 잘 이해돼요,’ ‘칭찬해주시니까 좋아요,’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이 느껴져요,’ ‘듣는 설교는 목사님만 하는 것 같았는데 몸으로 하니 같이 성경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내가 마치 성경 속의 진짜 인물이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성경을 대충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등과 같은 긍정적인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특히나 신체활동이 없는 하브루타를 진행할 때에는 아이들이 지루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으나 아이들의 연령에 기초한 신체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가려는 욕구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아동, 청소년기의 운동지침(ACSM, 2020)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상의 잇점을 도출하기에는 주 1회의 프로그램 적용이 활동량 충족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추후 가정과 교회의 연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활용한 성경하브루타의 개발과 적용도 의미있으리라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한국교회의 교회학교에서의 다음세대의 부흥과 올바른 신앙교육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람과 사명을 가지고, 두 명이 짝을 지어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며,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유대인의 교육방법인 하브루타를 신체활동과 접목하여 교회학교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그 효과와 가능성을 점검하여 오늘날 다음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한국교회와 공유하여 그 아픔과 위기를 함께 극복해보고자 목적으로 교회학교 초등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을 통한 하브루타를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신체활동을 통한 하브루타의 적용은 어린이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신체활동을 통한 하브루타는 어린이들의 성격 형성과 상호이해와 협조,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체활동을 통한 하브루타의 적용은 어린이들의 신체발달에 긍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신체활동을 통한 하브루타의 적용이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추후 좀 더 명확한 결론 도출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설문이나 측정에 의한 효과분석도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이고 협력적인 신앙교육에 대한 심층적 고민이 더욱 더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국민일보(2023), 교회학교, 저출산 쇼크에 아이들 사라져... 10년새 45% (2023.03.06. 일자)
- 김보경(2019). 하브루타를 적용한 실천적 지식 학습 모형 개발. *신앙과 학문*, 24(3), 163-197.
- 김영한, 김민철(2021). 신나는 하브루타 말씀여행 1, 목양출판.
- 김예성, 김은정(2021). 아동,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 관계에서 아침식사, 수면, 신체활동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웰니스학회지*, 16(4), 201-209.
- 김윤순(2018). 생각 뇌를 키우는 하브루타, (주)경향BP
- 나자유(2022). 자녀와 함께하는 창세기 하브루타1 BOOKK,
- 박경만, 정주혁, 김맹규(2013). 아동들의 신체활동을 높이기 위한 방법 및 전략에 관한 최신 동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3), 205-218.
- 박종신(2018). 메타인지와 예수님의 하브루타, 성경암송학교
- 이선경, 이신영, 김은정, 김수진(2020). 아동비만. 비만아동의 생활습관과 체력, 스트레스, 신체활동량 분석. 도서출판 디자인21.
- 이익렬(2019). 하브루타, 교사가 답이다, 두란노
- 이종화(2012). 하브루타와 묵상, (주)에센에스 미디어
- 이지영, 김성원(2020). 유아를 위한 성경이야기 연계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기독교교육정보*, 65집, 1-30.
- 이혜정(2020). 코딩을 활용한 신체 게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9(1), 25-47.
- 전성수, 이익렬(2016). 말씀으로 토론하라 교회 하브루타, 두란노

- 정옥경, 정대현(2016).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성경적 덕성교육 모형 개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3), 413-442.
- 정혜림(2016). 협력적 인성을 키우는 신체활동 운영 방안. *한국유아체육학회지*, 17(2), 30-35.
- 크리스천 노컷뉴스(2022), [CBS 뉴스] 통계로 본 장로교단, 교인수 감소 브레이크가 없다(2022. 9. 27 일자).
- 하브루타 선교회(2019). *실전! 교회하브루타*, 두란노
- 한국갤럽(2023). <https://www.gallup.co.kr>
- ACSM(2018). *ACSM's Guidelines for exercise testing and Prescription*, 10th edition.
- ACSM(2020). *ACSM's Guidelines for exercise testing and Prescription*, 11th edition.
- YTN뉴스(2023), 인지 발달 늦은 영유아 급증...서울시, 무료로 발달검사 지원(2023. 6. 8 일자)